

[讨论稿]

「디지털경제-플랫폼자본주의」

박철현(국민대)

1.

1장에서 디지털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을 주장. 2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정을 설명. 3장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 4장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 문제점을 1페이지로 요약

2.

미완성 형태의 발표문임. 발표문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 몇몇 특징을 제시한 것으로 그치고 있어서 아쉬움. 토론자는 발표자가 중시하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에 대한 심화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플랫폼 자본주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떠한 질적 양적 전환을 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여김.

본 토론문은 당대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플랫폼 노동에 관한 개괄적 설명을 통해서 발표자가 심화된 디지털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중국 플랫폼 기업/경제의 현황

2018년 31조2934억 위안(GDP 34.8%); 2018년 광둥성 디지털경제 4조 위안 돌파; 베이징 GDP 50% 돌파;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 3차 산업 중심 고용구조 재편; 노동집약형 업종 일자리 대폭 감소 전망

▶ 플랫폼 노동 규모

1억1천 만명 추산(Foreign Policy) 전체 노동자의 15%; 메이뽕(美團, 중국판배민)소속 배달기사만 295만 2천명; 플랫폼노동자의 상당수는 농민공; 상하이 디디추싱(중국판 우버) 기사 중 3%만 현지호구;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보장 배제의 불안정 노동

중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중화총공회’ 가입을 통해서 국가의 플랫폼 노동자 포섭 노력

▶ 플랫폼 노동 관련 중국 내 논의

기존 노동관계 개념은 산업혁명 시기 공장 노동관계에 기초, 플랫폼노동은 기존 노동과 많은 차별성 존재; 플랫폼노동은 해당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 특정 플랫폼의 특징과 구체적인 노동현실을 고려할 필요; 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플랫폼감독 강화 필요

노동자와 기업간 직접적 고용관계 부재; 노동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노동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복수의 플랫폼과 동시에 노동관계 구축

플랫폼기업의 지위와 책임, 플랫폼의 성질과 분류, 노동자와 플랫폼의 세수 징수와 납부 관계 등 불분명; 노동관계 존재여부의 판단기준인 ‘종속성’여부 모호; 종속성은 쌍방간 인사관리, 매월 정시 임금지급, 업무상 지도의 존재여부 등으로 판단; 아직, 쌍방간 노동관계/비(非)노동관계/민사관계 불분명; 대다수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노동자와는 ‘비노동관계’주장

▶ 플랫폼 노동의 특징

일자리의 인터넷화로 인터넷기술은 플랫폼경제의 토대; 인터넷은 노동시장 내 수용-공급 연계 시스템과 자원배분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

업무과제의 프로젝트화; 플랫폼을 기초로 클라우드소싱과 공유경제 탄생; 과제는 세

부과제, 독립과제로 세분화된 후 플랫폼에 해당 정보가 게시되고 다양한 인력이 상호연계를 통해 해당과제 공동 수행; ‘저팔계망(<https://www.zbj.com/>)’에는 천만명이 넘는 기업과 인력이 등록

근무형태 유연화; 업무시간과 업무장소의 제약 사라짐, 일과 여가 통합;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후 인터넷 예약 차량 기사 근무; 음식배달기사가 플랫폼 통해 복수의 기업에 서비스 제공

▶ 플랫폼 노동자 현실

플랫폼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 스마트 배달 시스템’ 개발; 시스템 알고리즘 최적화로 업무효율 향상과 압박감 증가; 플랫폼의 평가기준 더욱 엄격화(만족도, 시간엄수율, 주문율); 이와 관련된 상벌제도 운영(상점, 벌점, 현금제공)

▶ 코로나19와 플랫폼노동

전염병 확산으로 음식배달 산업 급성장; 메이탄 영업수익 증가; 2020년 배달노동자 전년대비 16.4% 증가

감사합니다.